

아세안 정상회의에 등장한 불교 벽화

미얀마, 각국 정상에 불교 벽화 복제본 증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12세기 불교 벽화가 세계 각국의 언론 앞에 등장했다.

〈Asahi Shimbun〉지는 "미얀마에서 발견된 12세기 벽화의 복제본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에게 선물로 증정됐다"며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이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 국가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불교로 소통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증정된 복제본의 원본인 12세기 불교 벽화는 세계 3대 불교유적으로 꼽히는 미얀마 바간(Bagan)에서 지난 6월 발견되어, 미얀마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복제본은 일본 도쿄대학원 미야사코(Miyasako) 교수가 제작했다.

"군무를 비롯해 불교축제의 다채로운 장면들을 담은 벽화로 예술성도 높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벽화"라고 설명한 미야사코 교수는 "일본의 문화재 보존 기술이 12세기 벽화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세계 정상들에게 선물로 증정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얀마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일본 도쿄대학원 미야사코(Miyasako) 사진 오른쪽) 교수가 11월 5일 미얀마 산다 킨(Sanda Khin, Myanmar's deputy minister for culture) 장관에게 지난 9월 미얀마 정부에 의뢰 받은 불교 벽화 복제본을 건네고 있다.

미얀마서 발견된 12C 불화 복제

일본 미야사코 교수가 담당

미얀마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군무·불교축제 벽화에 담겨

복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문화재 보존기술을 면밀히 평가하고 미야사코 교수를 선정, '벽화의 질감과 색감을 모두 재현' 한 복제본 제작을 의뢰했다.

"벽화의 본제본 25점을 지난 5일 미야사

코 교수에게 받았다"고 밝힌 산다 킨(Sanda Khin, Myanmar's deputy minister for culture) 장관은 "고대의 벽화를 원형 그대로 복제한 미야사코 교수에게 감사한다"며 "불교축제의 한 장면을 담고 있는 벽화처럼,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아세안 공동체' 출범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sahi Shimbun〉지에 따르면 12세기 불교 벽화의 복제 과정에는 도쿄대학원 문화재 복원 학과 재학생 15명을 중심으로 '벽화 복원팀(이하 복원팀)'을 결성, 2개월

간 공동 작업으로 진행됐다. 당시 바간을 방문한 복원팀은 초정밀 카메라로 벽화를 촬영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한편 벽화의 재질과 안료 성분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미지에 원본 재질의 질감과 원본 안료의 색감을 그대로 복원해 61cm×90cm 크기의 복제본을 완성했다.

"서로 다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정상들이 불교라는 정신문화에 힘입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결성되길 복제 과정 내내 기원했다"는 미야사코 교수는 "지금까지 '문화외교'는 선진국형 외교 방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미얀마에서 이를 과감히 채택, 실행에 옮긴 것에서 미얀마의 염원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 도쿄대학원 문화재 복원기술이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12일부터 양일간 미얀마 네파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는 내년 12월 말까지 출범할 예정인 아세안공동체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뒤이어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등 아세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상들이 모여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얀마는 이번 정상회의를 끝으로 말레이시아에 의장국 지위를 넘겼다.

오종욱 편집위원

틱낫한, 뇌출혈로 집중치료중

플럼빌리지 11월 12일 홈페이지 통해 공식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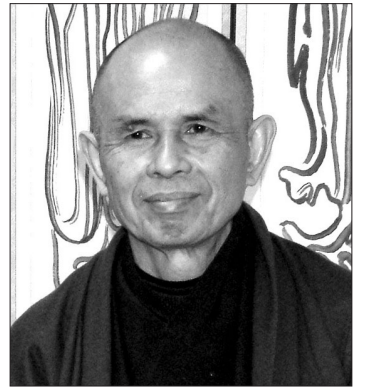
세계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88) 스님이 심각한 뇌출혈로 현재 프랑스의 병원에서 집중 치료(intensive care)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에 세운 불교 명상공동체 플럼빌리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제자들인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지난 11일부터 그를 24시간 집중 치료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현재 치료에 반응을 보이며 손과 발, 눈 등을 움직일 수 있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틱낫한 스님은 노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11월 1일부터 프랑스 보르도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베트남 출신인 그는 23세에 승려가 돼 시인, 학자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등의 평화운동가로 활동하며 티베트의



세계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88) 스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녔다.

한국 내에도 〈화〉, 〈오늘도 두려움 없이〉 등 저서 다수가 출판됐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호주 불교 고등학교 자선 무도회 개최

첫 불교 사립고...지역 주민 참여 유도



호주에 처음 문을 연 불교 고등학교인 'Pal School'의 학생들.

호주 첫 불교 고등학교의 활동이 활발하다.

〈Champion〉지는 "호주의 첫 불교 고등학교로 문을 연 PAL 고등학교가 자선 무도회 'King Ashoka's Ball'을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PAL 고등학교는 2년 전 자비와 연민을 교훈으로 삼아, 시드니 캔리 베일(Canley Vale)에서 문을 열었다.

"2년 전 17명의 학생으로 문을 연 PAL 고등학교에는 현재 5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팄 판하(Pal Panha·50) 교장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선 무도회 'King Ashoka's Ball'을 기획한 것은 지역 사회에서 PAL 불교 고등학교의 인지도를 높이는 학생들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PAL 고등학교의 인지도는 시드니의 다른 사립 중·고등학교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한 〈Champion〉지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최

근 실사한 공·사립 중고등학교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비불자라도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드니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PAL 고등학교의 자선 무도회는 시드니에서 불교 고등학교의 존재를 알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AL 고등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이스(Joyce Nguyen) 교사는 "종교 철학 수업에서 불교만을 가르치지 않는다"며 "PAL 고등학교가 불교계 학교 이기는 하지만, 교육 내용은 서로 다른 문화, 가치관에 대해 관용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PAL 고등학교의 자선 무도회 'King Ashoka's Ball'에서는 학생,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극, 노래, 춤 등의 무대 공연이 마련된다. 또한 무도회 말미에 진행될 추첨의 당첨자에게는 Miss Charity Australia를 만나는 기회도 주어진다.

오종욱 편집위원

도심 동물에게도 '자비'를

캐나다 문라이트 재단, 버팔로랜드 동물원 관리 맡아 예산 부족으로 방치된 동물들...자비행으로 살피우다

캐나다 킹스 카운티(Kings County)의 애물단지 버팔로랜드(Buffaloland) 공원이 불교 공익재단의 노력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Amherst News〉지는 "문라이트(Moon Light) 법인이 지난 4월부터 관리·운영해온 버팔로랜드 공원이 옛 모습을 되찾고 있다"며 "버팔로랜드는 들소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도심 속 동물들의 안식처로서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버팔로랜드 공원은 킹스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공공 동물원으로, 한때 킹스 카운티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관리 개체가 증가하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게 되자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Amherst News〉지에 따르면 버팔로랜드 공원의 매달 관리비는 2년 전 1만 천 달러에서 올해 초 6만 달러(약 5천 9백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킹스 카운티 위원회는 버팔로랜드 공원을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동물원의 수익성이 낮아 버팔로랜드 공원의 매각 공고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 기업은 없었다. 이때 문라이트 법인이 기존의 예산을 편성·지원한다면 '동물원 관리'만을 맡겠다고 제안했다.

버팔로랜드 공원의 동물원은 들소 105마리, 말 50마리, 라마 10마리 외에도 오리, 개, 고양이 등을 방목하고 있다.

"킹스 카운티 예산의 한계로 동물원 내 180여 개체의 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처님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자비를 실천하라 하셨는데, 문라이트 재단이 그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더없이 기쁘다"고 말한 문라이트 재단의 피츠패트릭(Fitzpatrick)



캐나다 킹스 카운티에 있는 버팔로랜드 공원에는 들소, 말, 라마 등을 방목하고 있다.

대변인은 "지난 8개월간 울타리 등 버팔로랜드 동물원의 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기존 동물 외에도 도심에서 버림받은 동물의 안식처로도 동물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라이트 법인은 지난 2010년 캐나다

세인트로렌스 남부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주의 불교계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현재 국제적인 조직망을 다지며 캐나다 안팎에서 도움을 손길을 받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산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면 누구나 기반산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산

기반산 10분 지체 10분 수련 기반산

성불할때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기반산

기반산 10분 지체 10분 수련 기반산

기반산 10분 지체 10분 수련 기반산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